

새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성경본문 <민수기 27장 12절 ~ 23절>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3]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14]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 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트리바 물이니라 [15]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16]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니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19]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21]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결로써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22]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패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가장 마지막 사람 모세**가 남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우상숭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 명령한 대로가 아닌,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내었던 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난 주 화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작아 보이는 일의 의미_민수기 20:1~13)*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준비 사항 중에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자신을 이을 다음 사람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15]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16]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니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걱정했습니다. 40년 이상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지도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자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그대로 다음 세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의미로, **우리들의 사명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역사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사도성”**이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부활을 경험했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사람들의 피의 증언을 통해서, 자녀에서 자녀로 이어지듯 신앙이 이어져왔음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사명이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자녀들이 믿음의 유업이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기업,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보니까,

2. 하나님 사람의 기준 -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19]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허락하신 새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의 활약을 여러 차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군인이었고, 회막에 머무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명하실 때의 이유가 그가 뛰어난 군인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나 능력 때문도 아니라,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사와 이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와 같은 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은 구약 시대에 임하였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고 실체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가정, 직장,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기도제목>

1. 사람을 준비하고 세우는데, 마음을 두고, 그 일에 만남과 은혜를 허락하소서.
2.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